

마오쩌둥 혁명 시학(詩學)의 ‘언어’ 프레이밍 고찰*

장준영**

— 목 차 —

1. 머리말
2. 혁명 리얼리즘 콘텍스트
 - 1) 혁명 리얼리즘 ‘시사(詩史)’
 - 2) 혁명 ‘언어’ 콘텍스트
3. ‘인민성(人民性)’ 구축
 - 1) ‘군중 노선’과 군중 레토릭
 - 2) ‘홍색(紅色)’ 인민 정체성
4. 각인(imprint)과 메타포(metaphor)
 - 1) 혁명의 ‘실존’과 ‘각인’
 - 2) 혁명 ‘은유’와 감성 파놉티콘
5. 언어 프레이밍과 혁명 시학의 정치 함수
 - 1) 언어 프레이밍과 담론 정치
 - 2) 정치 시학 메커니즘
6. 맺음말

국문초록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혁명 시가는 중국 전통 시학의 리얼리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언어 콘텍스트와 언어 프레이밍을 구성한다. 구성 과정을 개괄하면, 첫째, 강렬하고 반복적인 ‘군중’ 레토릭을 통하여 군중을 ‘인민화’하고 다양한 존재적 경험과 섬세한 시적 서사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인 ‘붉은’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9778)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정체성을 구현한다. 둘째, 웅장한 자연경관을 묘사한 거시적 장면과 혁명 군대의 움직임에 상세히 묘사한 미시적 장면 그리고 원거리와 근거리 묘사의 완벽한 조화 등을 통하여 장면을 극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혁명 현장을 시시각각 군중과 공유하는 시적 효과를 거둔다. 셋째, 흰색과 빨간색 같은 강렬한 색 대비를 통하여 시적 각성 효과와 긴장감을 높이고 적절한 시적 은유를 활용하여 혁명의 정당성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그린다. 마지막으로, 마오쩌둥의 혁명 시가에서 사용된 다양한 언어와 시적 이미지는 이후 중국 정치의 주요 언어 콘텍스트로서 정치 사회적 언어 메커니즘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키워드: 마오쩌둥, 시학, 언어 프레이밍, 군중 노선, 메커니즘

1. 머리말

시(詩)와 정치는 언뜻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를 하나의 특수한 언어 형식으로 보면 그 친소의 경중을 떠나 양자가 서로 연결되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이런 막연한 생각은 몇 가지 자료 열람만으로도 너무나 박약한 것이었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어찌면 역사적으로 시와 정치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심지어 시적 감성(예술)과 정치 선동(현실)의 관점에서 양자는 태생적 불가분의 관계로서 시시각각 ‘정치의 시화(詩化)’ 혹은 ‘시화된 정치’의 한가운데서 쉼 없이 작동하는 정치 원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인이자 시인이었던 아테네의 현자(賢者) 솔론¹⁾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다. 그

1) 솔론(Solon, BC638년경~BC558년경)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인, 입법자, 시인이며 그리스의 일곱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특히 고대 아테네의 정치, 경제, 도덕이 쇠퇴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 새로운 법을 세운 노력으로 유명하며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을 옹호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를 창작하였는데 특히, 솔론은 '기쁨'에 대한 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시는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도 담고 있어 그가 추구한 개혁의 의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는 시를 통하여 부자와 서민의 관계를 노래하고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격정적으로 표현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곤 하였다.

우리의 도시를 파멸시키는
 탐욕스런 부자들이여!
 부끄러움도 모르고,
 탐욕스런 뇌물과 부도덕한 이익을 탐하고 있도다!
 법은 거미줄처럼 약한 자만을 움아매고
 강한 자들은 모두 빠져나간다.
 그들의 탐욕에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정의가 억압당하고 있도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솔론편』)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 배려하고, 개혁을 통하여 사회 부조리를 없애고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솔론의 마음이 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열정적인 시풍은 지금 보아도 거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공을 초월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이처럼 시학(詩學) 정치를 시도하는 이른바 ‘시인 정치인’은 시를 정치 수단으로 삼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시인으로서의 진심과 예리한 통찰력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다. 특히 대중의 감성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성공적인 ‘시인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솔론의 예는 시학 정치의 역사가 소크라테스보다도 훨씬 이전의 고대 그리스 정치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중국 정치 문화 역사에서 정치인에게 문학적 소양, 특히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선진(先秦)시대부터 이어 온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 따라서 시적(문학적) 소양은 중국 정치인에게 거의 유전적 본질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중국 문화에서 정치와 시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참조)

는 태생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 온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자(孔子)가 편찬한 『시경(詩經)』은 정치 지식인들의 언어와 인성을 함양하는 학습 교재였으며 그 내용을 익히고 응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는 물론 사신으로서 타 지역에 갈 수조차 없었고, 심지어 시교(詩敎)의 보급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의 문명화 정도나 정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하였다.²⁾ 그리고 이런 공자의 생각은 후대로 면면히 이어져 오며 과거(科擧)시험에서도 주로 시와 글을 쓰는 능력을 보는 진사과(進士科)는 인재 선발의 핵심 과목이었으므로 정치인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시가 창작 능력은 필수였고 시대를 건너 현재도 시 창작 능력은 정치를 포함한 중국의 인문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마오쩌둥이 시를 그것도 고전 시가 형식으로 시를 쓴 것은 문학적 재능을 지녔던 정치인으로서 어찌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정치인으로 인식한다. 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 플랫폼 바이두(百度)에서도 마오쩌둥을 각종 정치적인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를 ‘시인’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정치적 입지가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강력한 정치적 이분법이 적용되는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밟는 곳마다 시를 남기고 그것을 하나의 혁명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것과 그의 시가 현재까지도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의 사회주의 언어 콘텍스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오쩌둥을 시인으로 봐야할 이유 또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³⁾

2) 誦詩三百篇, 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論語子路』)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其爲人也溫柔敦厚, 詩教也。(『禮記·經解』) 춘추시대 정치 활동에서 시적 능력은 필수 요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급으로 실제로 춘추시대 타 지역에 사신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담판은 말보다는 시를 서로 읊조리는 경우가 많았다(『左傳』에 많은 예가 기록되어 있음). 이처럼 『시경(詩經)』은 정치인들의 필독서로서 시의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3) 괄말약(郭沫若)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 시사(詩詞)를 짓곤 하였는데 가히 시사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經綸外, 詩詞餘事, 泰

우리의 요구는 바로 정치와 예술의 통일, 내용과 형식의 통일, 혁명의 정치 내용과 최대한 완벽한 예술 형식과의 통일이다. 예술성이 결여된 예술품은 정치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관점이 잘못된 것도 반대하지만, 정확한 정치적 관점만 있고 예술적 역량을 지니지 못하는 이른바 '표어 구호 방식'의 경향 역시 반대한다. 우리는 마땅히 문예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정치 관점과 예술 역량) 두 가지 전략으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⁴⁾

위의 글에서 마오쩌둥은 정치와 예술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예술성이 결핍된 단순한 정치 구호를 반대하고 정치에 있어서의 예술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냉정한 눈으로 마오쩌둥을 바라보면, 아마도 그를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고 성공한 '시인 정치인'으로 형용하는 것이 그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마오쩌둥의 시가와 그 언어 콘텍스트의 형성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의 시작으로서 '시인'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혁명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 역정에서 시가 창작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작품에서의 시적 서사(敘事)와 서정(抒情)성이 실제로 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 혁명 전후 그의 작품들이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정치 언어 콘텍스트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그의 정치 시학(詩學)이 지니는 언어 콘텍스트의 특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山北斗。- 郭沫若, 「滿江紅讀毛主席詩詞」)”라고 하였는데 다소 과한 정치적 평가라고 하더라도 마오쩌둥이 고전 시사 창작에 대한 이해와 운용에 있어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 4) 我們的要求則是政治和藝術的統一, 內容和形式的統一, 革命的政治內容和盡可能完美的藝術形式的統一。缺乏藝術性的藝術品, 無論政治上怎樣進步, 也是沒有力量的。因此, 我們既反對政治觀點錯誤的藝術品, 也反對只有正確的政治觀點而沒有藝術力量的所謂“標語口號式”的傾向。我們應該進行文藝問題上的兩條戰線鬥爭。(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毛澤東選集』第三卷, 869-870쪽)

2. 혁명 리얼리즘 콘텍스트

1) 혁명 리얼리즘 ‘시사(詩史)’⁵⁾

마오쩌둥의 혁명 시가는 사실(寫實)주의 관점에서 두보(杜甫)의 시가와 매우 닮아 있다. 다만 두보의 시는 대부분 관찰자고발자의 시점이고, 마오쩌둥의 시는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참여자 시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20년대 공산주의 혁명의 시작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 혁명 지도자로서 마오쩌둥의 시가 창작은 마치 자신과 중국 공산당의 혁명 투쟁사를 기록해 두려는 듯 가는 곳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시를 쓰고 심지어 혁명 동지들과의 낭독을 통하여 시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매우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문학과 정치의 공존을 보여주었다. 특히 고난의 혁명 투쟁 과정을 반영하는 사실주의 시로 꾸준히 인민 대중들과 전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혁명 투쟁의 경과와 더불어 혁명의 당위성과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그려 내었다. 때로는 전장에 대한 극사실주의적인 섬세한 묘사를 통하여 현장감을 고조시켜 단결과 투쟁의 동력을 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장대한 자연 묘사를 통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투쟁과 희망 그리고 혁명 투사로서의 담대하고 원대한 꿈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살을 에는 서풍,
서리 맞은 새벽달 위를 울며 지나가는 기러기.
서리 맞은 새벽달,

5) 杜逢隴山之難，流離隴蜀，畢陳於詩，推見至隱，殆無遺事，故當時號爲詩史。(孟榮，《本事詩高逸》)(번역: 두보(杜甫)가 안록산의 난을 만나 사천(四川) 지역을 떠돌 때 자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모두 시로 적었는데 지극히 작은 일까지 모두 드러내어 거의 빠뜨린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의 시를 ‘시사(詩史: 시로 쓰는 역사)’라고 하였다.) 마오쩌둥과 두보의 시는 특히 ‘민중(民衆)’과 연결되어 있는 리얼리즘 시가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말발굽 소리도 깨어지고,
 나팔소리조차 추위에 얼어붙었다.
 누산관(婁山關)이 강철처럼 견고하고 험난하다지만,
 오늘 우리는 누산관의 정상을 넘어간다.
 누산관의 정상을 넘는데,
 푸르른 산들이 바다처럼 펼쳐지고,
 석양 노을이 피처럼 붉게 불타고 있다.⁶⁾

1935년 2월 장정(長征) 중 귀주(貴州)성 군벌 김군(黔軍)과 전투에서 승리하여 누산관(婁山關)을 확보한 후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마오쩌둥의 혁명 시가는 시인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공감각적 표현들을 통하여 내용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르고 난 직후 바로 직전의 전황을 회상하며 쓰는 시는 개인의 서사(敍事)와 서정(抒情)의 표현인 동시에 혁명 지도자로서 정황 보고서와도 같은 사실(寫實)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 전체는 ‘살을 에는 서풍-서리 맞은 새벽달-깨어지는 말발굽 소리-얼어붙은 나팔소리-누산관 정상-바다처럼 펼쳐진 산들-붉게 타는 노을’의 빠른 전개로 이어지며 시인이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듯 사실적인 화면을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그려 내고 있다. 군대에서 영하의 날씨에 극한에 다다른 행군이 바짝 언 강을 건널 때 나는 군화 발소리와 점점 아득해져 가는 소대장의 구령 소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말발굽 소리도 깨어지고, 나팔소리조차 추위에 얼어붙는’ 구절의 리얼리즘을 십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시 역시 비슷한 풍격을 보인다.

홍군(紅軍)에게 원정은 두렵지 않고,
 수많은 산과 강을 넘는 것도 일상사일 뿐.
 굽이굽이 고봉준령이 잔물결 치듯 펼쳐지고,

6) 西風烈，長空雁叫霜晨月。霜晨月，馬蹄聲碎，喇叭聲咽。雄關漫道眞如鐵，而今邁步從頭越。從頭越，蒼山如海，殘陽如血。(「憶秦娥·婁山關」) 1957년 1월 『詩刊』에 처음 실림.

광활한 오몽산(烏蒙山) 기세는 알알이 뭉친 진흙 구슬들이 구르는 듯하다.
 금사강(金沙江) 파도는 높이 솟은 절벽을 쳐서 덮히고,
 대도하(大渡河)에 걸쳐진 다리의 쇠사슬은 손이 시리도록 차갑구나.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민산(岷山) 넘자,
 홍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니 더없이 기쁘도다.⁷⁾

홍군(紅軍)이 장정(長征) 중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험준한 민산(岷山)을 넘어 마침내 감숙(甘肅)으로 들어선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작품으로 한 편의 장엄한 혁명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 리얼리즘 시가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지만 그 중에서도 공감각적 표현이 자주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작품의 시적 리얼리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둔다. 앞의 시에서도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을 두루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 시에서도 어김없이 시각과 청각이 사용되고 강을 건너 설치된 쇠사슬 다리 난간을 만질 때 느끼는 ‘손 시린 차가움’은 촉감을 표현하면서도 전체 시의 원근(遠近)의 균형을 맞추는 절묘한 시적 수사(修辭)가 활용되고 있다. 대체로 대자연을 묘사할 때는 원경에 초점을 맞추고, 홍군의 행군이나 전투에 대한 묘사는 근경으로 처리하여 시적 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절묘한 시적 운용을 보여준다. 어쩌면 마오쩌둥은 ‘시를 쓰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시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가 단지 문학예술의 혁명성만을 강조하고 문학예술의 예술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당연히 그것 역시 충분치 않아요. 예술성이 없으면 그것은 문학이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술이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⁸⁾

7) 紅軍不怕遠征難，萬水千山只等閑。五嶺逶迤騰細浪，烏蒙磅礴走泥丸。金沙水拍雲崖暖，大渡橋橫鐵索寒。更喜岷山千里雪，三軍過後盡開顏。(七律長征) 이 시는 1935년 10월 쓴 작품으로 마오쩌둥이 직접 홍군에게 낭송했던 7언 율시이다. 胡安吉, 「毛主席給我們朗誦詩」, 『解放軍文藝』1959年2月 참고)

8) 我們只是強調文學藝術的革命性，而不強調文學藝術的藝術性，够不够呢？那也是不够的，沒有藝術性，那就不叫做文學，不叫做藝術。(『毛澤東文集』第二卷，北京：人民出版社，2009，428쪽)

글에서 보듯이 마오쩌둥은 기본적으로 문학의 예술적 가치와 정치적 효용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또 스스로도 그것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재능을 지니고 있던 정치인이었다.

혁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 정치인'의 위치를 견지하였던 마오쩌둥은 혁명 리얼리즘 시가 창작을 통하여 혁명 과정에서 시시각각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인민들과 소통을 유지하며 혁명 지도자로서의 진실성과 비범함을 민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적 입지를 다져 나갈 수 있었다. 혁명 리얼리즘 관점에서 마오쩌둥의 시는 전통 시가 형식으로 혁명 투쟁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담아내어 정치 혁명 투쟁 과정에서의 정신 동력을 만들어 내는 혁명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마오쩌둥은 이러한 자신의 시적 언어 능력을 심분 활용하여 전체 민중을 선동하고 규합함으로써 초기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과 사회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만들어 가게 된다.

2) 혁명 '언어' 콘텍스트

마오쩌둥 시가의 혁명 리얼리즘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시의 내용과 더불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어(詩語)'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시는 시어의 조합으로서 각각의 시어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와 특성들이 모여 풍격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시어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천착은 시를 읽고 이해하는 기본 조건이다. 특히 마오쩌둥과 같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시인은 일반 시인에 비하여 더욱 뚜렷한 시어 선택의 특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시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의 시어들이 선택되고 또 그 선택한 시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어떤 시적 '의미장(意味場)'⁹⁾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그런 시어의 선택과 활용에

9) '의미장(意味場 semantic field)'은 '낱말밭'이라고도 한다. 언어학에서 특정 주제를 가리키도록 의미론적으로 묶인 단어들(어휘소)의 집합을 가리킨다. 특정 낱말들이 지니는 의

서의 특성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선전 전략 측면에서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 수용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농민 혁명을 외치며, 낫과 도끼가 그려진 깃발 치켜들었도다!
 강서(江西) 여산(廬山)에 멈추지 않고, 호남(湖南)을 향해 진격,
 가혹한 지주들의 압박에, 농민들이 합세하여 대항하니
 추수 때조차 근심에 찬 검은 구름 때, 천둥소리 같은 폭동이어.¹⁰⁾

1927년 9월에 있었던 ‘가을걷이 폭동(秋收起義)’은 1927년 10월 정강산(井岡山) 혁명 근거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정강산 혁명 근거지’는 중국 공산당이 호남(湖南)성과 강서(江西)성이 접해 있는 라소(羅霄)산맥의 정강산 지역에 만든 첫 번째 농촌 혁명 근거지로서 이듬해 4월에 남창(南昌) 반란 잔여 세력과 합세하여 공산당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이 작품에서 쓰인 농민, 혁명, 낫과 도끼, 깃발, 진격, 폭동 등의 시어들은 모두 옛 소련의 국기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주의 혁명 언어 콘텍스트로서 마오쩌둥 시의 시적 수사(修辭)에 상용되는 시어들이다.

혁명 투쟁 관련 시어들은 사회주의 혁명 과정과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대표적인 언어 콘텍스트이다. 마오쩌둥 사상의 근간이 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정(正: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 반(反: 노동자 계급의 반란) - 합(合: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새로운 질서)’의 구조는 매우 논리적인 구조로 보이지만 그 의미와 진행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다소 섬뜩함이 느껴진다.

미를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려는 의미 이론으로서 하나의 낱말밭에 속하는 단어는 같은 낱말밭 속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필자 주)

10) 軍叫工農革命，旗號鐮刀斧頭。匡廬一帶不停留，要向瀟湘直進。地主重重壓迫，農民個個同艱。秋收時節暮雲愁，霹靂一聲暴動。（「西江月·秋收起義」）이 작품은 1927년 창작되었으며 원제는 「秋收暴動」이었는데 1986년 인민문학출판사에서 『毛澤東詩詞選』을 출판하면서 마오쩌둥 친필 수정 원고를 근거로 「秋收起義」로 수정하였다. (公木, 『毛澤東詩詞鑑賞』, 長春出版社, 2020, 261쪽)

말 그대로 최종 결과물인 '합'은 '정'과 '반'의 갈등이 해결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정반합은 '정'의 잠재적 모순을 빙자하여 '정' 전체를 삭제 혹은 덮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 즉,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며 그 과정은 '나와 적('나'가 아닌 것)'이라는 적대적 관계의 이분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전개가 만들어진다. 마오쩌둥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언어 콘텍스트는 바로 이런 사회주의 '혁명' 논리를 촉발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현재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를 포함한 일련의 정치 행위 역시 이런 사상적 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회주의 정치 행위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성'과 더불어 마오쩌둥의 시에 드러나는 또 하나의 언어 콘텍스트가 바로 '환각(hallucination)과 환상(illusion)'¹¹⁾이다.

아득히 멀리 강줄기들은 조국의 대지 위를 흐르고,
 유유히 흐르는 장강(長江)이 남북을 관통하네.
 안개비 아득한 봄날, 거북산과 뱀산이 강을 가두고 있다.
 황학(黃鶴)은 어디로 갔는가, 남은 것은 나그네 머물 자리뿐.
 술잔을 들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니, 내 마음도 파도를 따라 높이높이 떠오른다.¹²⁾

같은 해에 지은 '가을건이 폭동'과 비교해 보면 사뭇 다른 시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하나의 소재로 다른 풍격의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서로 다른 언어 콘텍스트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11) '환각'과 '환상'을 비교하면, '비현실성'과 '지각의 왜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환각'은 비현실적인 감각적 경험이고, '환상'은 상상력에 의존한 비현실적이고 창조적인 경험을 가리킨다. 마오쩌둥 시에서의 '환각과 환상'은 작가와 독자가 공통으로 느끼는 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필자 주)

12) 茫茫九派流中國，沉沉一線穿南北。煙雨莽蒼蒼，龜蛇鎖大江。黃鶴知何去，剩有遊人處。把酒酌滔滔，心潮逐浪高。(「菩薩蠻 黃鶴樓」 一九二七年春)

이 작품에서는 앞의 시와는 전혀 다른 ‘환각과 환상’을 시의 언어 콘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풍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마오쩌둥의 시에서는 ‘투쟁’ 그리고 ‘환각과 환상’을 대표적인 언어 콘텍스트로 삼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환각과 환상 콘텍스트는 주로 아름다운 국토의 강산에 대한 찬사에 더하여 자연스럽게 민중(民衆)을 오버랩 시킨다.¹³⁾ 이는 현재 중국의 ‘중국몽(中國夢)¹⁴⁾과도 언어 콘텍스트의 전승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분명 일반적인 서사나 서정을 표현한 시가 아니며 혁명 지도자로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을 객관적 사물에 녹여 낸 사회주의 시가 예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국의 강산을 미화하는 시는 어디에나 있지만 마오쩌둥의 시에서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영토를 유토피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마치 공상 사회주의와 과학 사회주의의 절묘한 시적 결합을 독자 앞에 전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런 환각과 환상 기법은 시적 언어 조작을 통하여 때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함축적으로 때로는 매우 강렬하게 현실을 왜곡하면서 인민대중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의 복선을 깔아 놓기도 한다. 이처럼 ‘명산(아

13) 江山就是人民, 人民就是江山。(習近平2021年2月20日「在黨史學習教育動員大會上的講話」, 『百度百科』 검색: 2024.10.31) 시진핑의 이런 ‘언어’는 마오쩌둥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 콘텍스트로 볼 수 있다.

14) 2012년11월29日習近平總書記在國家博物館參觀《復興之路》系統闡釋了“中國夢”后, “中國夢”一詞開始成爲社會熱詞, 并成爲全國人民爲國家富強、民族振興、人民幸福而努力奮鬥的動員令。(《光明日報》2014年02月12日)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근대이후 가장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의 실현’으로 정의한 ‘중국몽(中國夢)’은 사회주의 언어 콘텍스트에서 일종의 집단적 ‘환각과 환상’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환각과 환상’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현실을 이상화하고 그 현실을 통해 사회적 충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중국몽’은 국가 주도의 역사적 서사에 기반하여 강력한 국가 부흥을 약속하며 집단적 꿈을 공유하게 만들고, 실제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환각과 환상’의 역할을 하며 중국인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집단 환상 언어 콘텍스트는 주로 독재 권력이나 전체주의 경향을 드러내는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나 아렌트(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전문 참조)

름다운 조국 산하)'과 '명인(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결합에 의한 환각과 환상의 언어 콘텍스트는 마오쩌둥 혁명 리얼리즘 서사의 상용 수법으로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과 논증으로는 단어나 경구에 맞설 수 없다. 특정한 단어를 군중 앞에서 엄숙하게 발설하면 군중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조아린다. 많은 사람이 이런 현상을 자연의 힘이나 초자연적 매력이라고 여긴다. 군중은 그 단어와 경구를 들으며 장엄하고 모호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런 모호함이 군중을 현혹하고 단어에 신비로운 힘을 더한다. 장엄하고 모호한 이미지는 성막 뒤에 감추어져 있어 신자들이 부들부들 떨며 다가가는 신상(神像)에 비교할 만하다.¹⁵⁾

위의 글은 마오쩌둥의 시와 글에 대한 중국 인민의 숭배를 그대로 묘사한 글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이른바 '시인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뛰어나므로 선동에 능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만일 그 언어가 특별히 문화적 소양이 있는 소수만이 가능한 특수한 언어 형식이라면 그 정치인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종화(異種化)'를 거쳐 '우상화(偶像化)'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더구나 '군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환상'을 원하기 때문에 별레가 불빛으로 모여들 듯이 '환상'을 보여주는 연설가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¹⁶⁾는 말처럼 시를 써서 감동의 흔적을 남기는 혁명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신비감과 더불어 시적 언어 콘텍스트의 환각과 환상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시적 언어 콘텍스트가 만들어 낸 환각과 환상은 마오쩌둥 시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언어 콘텍스트로서 중국 사회주의 권력의 언어 콘텍스트가 지니는 특성과 방향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

15) 퀴스타브 르 봉, 강주현 옮김, 『군중심리』, (서울: 현대지성, 2023), 124쪽

16) 주15)와 같은 책, 131쪽

3. ‘인민성(人民性)’¹⁷⁾ 구축

1) ‘군중 노선’¹⁸⁾과 군중 레토릭¹⁹⁾

마오쩌둥은 ‘군중(群衆)’을 혁명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혁명 성공의 열쇠라고 보았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혁명 지도자로서 동기 부여를 통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무엇보다 혁명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군중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선전과 프 로파간다를 통하여 군중을 ‘인민화(人民化)’²⁰⁾ 하는데 집중하였다. 나아가 군

- 17) ‘인민성(人民性)’은 ‘중국 공산당 인원의 도덕적 기본 가치 속성’을 가리킨다. 자주 ‘당성(黨性)’과 함께 언급하면서 ‘인민성’과 ‘당성’의 일치를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 백년 역사를 관통하는 도덕적 추구이기도 하다. (참고: 人民性是中國共產黨人道德的根本價值屬性。- 靳鳳林, 「中國共產黨人道德的人民性」, 2021年7月5日 『光明日報』)
- 18) ‘군중노선(群衆路線)’은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 가치로서 “모든 것은 군중을 위한 것이며 모든 것은 군중에 의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군중으로부터 나오고 군중에게로 다시 돌아간다(一切爲了群衆, 一切依靠群衆; 從群衆中來, 到群衆中去)”는 기치 아래 오로지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 공작(工作) 노선을 가리킨다. (毛澤東, 「關於領導方法的若干問題」, 『毛澤東選集』 第三卷, 99쪽 참조)
- 19) ‘레토릭(rhetoric)’은 언어의 사용과 표현 기술에 관한 학문으로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으로서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기법과 전략을 포함하며 언어의 선택, 구조, 스타일 등을 통해 감정이나 사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을 ‘설득의 예술’로 정의하며 레토릭이 세 가지 주요 요소인 로고스(논리적 증거), 파토스(감정적 호소), 에토스(화자의 신뢰성)를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레토릭을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서의 중요한 도구로 보고 공공 연설, 법정 변론 그리고 일상 대화 등에서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통 및 설득의 도구로서 마오쩌둥의 시와 대중의 관계를 바라보았다.(필자 주)
- 20) ‘인민화(人民化)’는 ‘인민대중’의 ‘중국화’를 의미한다. 마오쩌둥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핵심으로 모인 집단을 의미하는 ‘인민’을 혁명 투쟁 과정을 통하여 ‘중국화’하였는데 주로 농민과 노동자 계층으로 이루어진 인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마오쩌둥은 ‘인민화’ 통하여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과의 단절을 피하고 ‘계급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촉진하려 하였다.(필자 주)

중과의 긴밀한 소통하면서 혁명 의지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군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군중 레토릭을 사용하여 일종의 군중 문화 순환 메커니즘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의 혁명 시가 창작을 통한 군중 레토릭은 혁명 과정에서 군중의 감성적 측면을 자극하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시적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과거의 문예 형식을 우리가 거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러한 과거의 문예 형식들이 우리 손에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개조하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넣으면, 바로 혁명적인 그리고 인민(人民)을 위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²¹⁾

이 문장은 마오쩌둥 자신이 고전 시사 형식의 시를 쓰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개조(改造)'라는 말은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것'을 의미하고 그 내용은 당연히 혁명 정신이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시는 온전히 '개조'를 거친 혁명 문학 작품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군중 레토릭의 향연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마오쩌둥 스스로 문예를 혁명의 도구라고 하였듯이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하여 군중의 행동 지침과 사상의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군중 스스로가 혁명의 핵심이라는 점을 자각하도록 하였고, 군중이 혁명 주체로서 혁명적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혁명 전선의 선봉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이처럼 마오쩌둥의 혁명 시가는 철저히 군중을 겨냥한 레토릭으로 단순한 시적 수사(修辭)를 넘어 하나의 강렬한 선동 언어로 기능하며 군중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혁명 전선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격변하는 바람과 구름, 다시 시작된 군벌들 사이의 전쟁,
그들이 세상에 뿌린 것은 인민의 원망 뿐, 일장춘몽 헛된 꿈을 또다시 꾸는가!

21) 對於過去時代的文藝形式，我們也並不拒絕利用，但這些舊形式到了我們手裏，給了改造，加進了新內容，也就變成革命的爲人民服務的東西了。(毛澤東，「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毛澤東選集』第三卷，855쪽)

홍군(紅軍)의 붉은 깃발 텡장(汀江)을 넘어, 곧장 롱옌(龍巖)과 상항(上杭)으로
진격,

비로소 되찾은 귀중한 국토의 일부, 서둘러 토지를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노
라.²²⁾

원 작품 속에 숨겨놓은 ‘인민(人民)’이 번역문을 통해 드러난다.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혁명은 보통의 ‘군중’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인 ‘인민(人民)’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민’이란 단어는 중국 공산당 정치 언어 체계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서 그 의미 변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학자는 민주 혁명시기 중국 공산당의 ‘인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 구성 과정을 연구하여 시기별로 각기 다른 ‘인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민 대혁명 시기(1924-1927)에는 ‘인민’과 ‘국민’이 같이 쓰여 ‘군벌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켰고, 토지혁명 시기(1927-1937)에는 다시 ‘인민’의 의미가 ‘공장 노동자, 농민, 홍군 사병 및 모든 노동자’에서 ‘항일 투쟁하는 모든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을 하였고, 항일 전쟁 시기(1931-1945)에는 넓은 의미의 ‘인민’과 좁은 의미의 ‘인민’이 공존하였다. 그리고 해방전쟁 시기(1945-1949)가 되어서야 ‘인민’이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도시 소자본계급 그리고 민족자산계급’을 가리키게 되면서 마침내 ‘인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고 한다.²³⁾ 위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혁명 전선 전략을 통하여 일반 대중을 이른바 사회주의 ‘민중’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군중 노선’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혁명 문인과 예술가들은 오로지 군중(群衆)과 이어지고, 군중을 표현하

22) 風雲突變，軍閥重開戰。灑向人間都是怨，一枕黃梁再現。紅旗躍過汀江，直下龍巖上杭。
收拾金甌一片，分田分地真忙。（「清平樂·蔣桂戰爭」）

23) 李永進(2016), 「新世紀以來國內中國共產黨政治話語研究析論」, 『東岳論叢』第37卷第12期, 174쪽

며, 스스로를 군중의 충실한 대변자로 여겼을 때, 문인과 예술가들의 작업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로지 군중을 대표해야 군중을 교육할 수 있고, 오로지 군중의 학생이 되어야 비로소 군중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를 군중의 주인으로 여기거나 '하층민'의 머리 위에 높이 앉아 있는 귀족으로 여긴다면, 문인과 예술가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중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작업은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²⁴⁾

이처럼 마오쩌둥의 군중노선은 반복적인 군중 레토릭을 수단으로 하여 농민과 노동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선동하고 혁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선전하면서 군중을 중국 사회주의 혁명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군중 레토릭 중에서도 마오쩌둥은 그가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마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고전 시가 형식에 혁명 정신을 담아 쓴 시들이었고 이는 그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2) '홍색(紅色)' 인민 정체성

중국어 사전에서는 '홍색(紅色)'을 붉은 색상²⁵⁾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혁명 혹은 정치적 깨달음이 높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한다.²⁶⁾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의 붉은색 역시 혁명의 뜨거운 피와 투쟁을 상징하며 중국의 사회

24) 一切革命的文學家藝術家只有聯係群眾，表現群眾，把自己當作群眾的忠實的代言人，他們的工作才有意義。只有代表群眾才能教育群眾，只有做群眾的學生，才能做群眾的先生。如果把自己看作群眾的主人，看作高踞于“下等人”頭上的貴族，那末，不管他們有多大的才能，也是群眾所不需要的，他們的工作是沒有前途的。(毛澤東，「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1942年5月23日，『毛澤東選集』第三卷，北京：人民出版社，2008，864쪽)

25) 빨간색은 모든 색 가운데서 가장 역동적인 색이다. 빨간 빛의 에너지는 동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호르몬 활동을 증진시킨다. 심리학적으로는 빨간색은 자극적이고 심지어 불안과 긴장을 증가시키는 색이며 또한 자극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색이기도 하다. (파버 비렌, 金化中 옮김, 『색채심리』, (서울:東國出版社, 1995, 318-319쪽)

26) 紅色：象徵革命或政治覺悟高的。(『現代漢語詞典』第7版, 540쪽)

주의 가치와 사상적 바탕을 가리킨다. ‘홍색’과 사회주의 정체성에 대한 것은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²⁷⁾ 1917년 10월 혁명으로 소비에트 공화국이 세워지고 중국에서도 5·4운동이 일어나면서 1927년부터 1930년 사이 이른바 ‘보라(普羅)’²⁸⁾ 시파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하나의 무산 계급 혁명 문학으로서 크게 유행하면서 ‘붉은’ 혁명 시들이 당시 시단을 점령하게 된다. 1925년 장광자(蔣光慈)의 시집 『신몽(新夢)』이 그 싹을 틔웠고, 본격적인 ‘보라’ 시파의 시작은 마오쩌둥의 혁명 동지였던 곽말약(郭沫若)의 시집 『회복(恢復)』(192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두 시집 이후, 시(詩)는 온전히 붉은 혁명의 요구에 부합하는 계급투쟁의 도구로서 대중을 선동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

나는 이미 붉디붉은 축수(祝壽)의 다음 술잔을 준비했다오,
친구여, 이 술은 나의 가슴 한가득 끓어 넘치는 뜨거운 피.
이 밤에 비릿한 꿏빛 바람으로 빔어내었으니
반드시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우주를 쟁취하리라!²⁹⁾

27) 알렉산드르 블로크(Aleksandr Blok 1880-1921)는 러시아의 상징주의 시인으로 그의 대표 서사시 「열둘(The Twelve)」(1918)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에 바친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블로크는 다른 글에서 혁명을 형상화하기 위해 ‘눈보라’ 등과 같은 강력한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자신의 시에 빌려와 썼다고 하였다. 「열둘」에서는 혁명의 상징으로 ‘눈보라’와 더불어 ‘타오르는 붉은 불’을 사용한다. ‘눈보라’의 메타포는 개인이 거역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거친 자연으로 혁명의 삼엄한 현실을 형상화하고, ‘타오르는 붉은 불’의 상징은 비로소 혁명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블로크는 「열둘」에서 붉은 군대, 피로 물든 발과 피에 젖은 손, 칼, 검게 변한 하늘 등 매우 강렬한 시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시어들을 사용하여 신성성과 폭력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혁명의 양면성을 치절하게 그려낸다. 본문에서 인용한 3수의 시는 색상(흰색 붉은색)의 활용에서 블로크의 시와 유사한 풍격을 보인다. (차지원 (2017), 「알렉산드르 블로크의 서사시 「열둘」에 나타난 불의 상징」, 『인문논총』 74 권 초록 참고)

28) ‘보라(普羅)’는 ‘普羅列타리아’의 약자로서 프랑스어 prolétariat를 음역한 단어로 무산 계급(프롤레타리아)을 가리킨다.

29) 我已準備下一杯鮮紅的壽酒，朋友，這是我的熱血充滿心頭。釀出一片血雨腥風在這夜間，戰取

‘붉디붉은’-‘뜨거운 피’-‘핏빛 바람’-‘태양’-‘쟁취’로 이어지는 자극적이고 선동(煽動)적인 혁명 구호와 같은 ‘보라’ 시파 서정시의 풍격 특성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오쩌둥 역시 강렬한 색채 대비를 통하여 자신의 작품에서 늘 중심을 차지하는 ‘붉은 깃발’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며 ‘홍색’을 강조한다.

온통 새하얀 하늘. 폭설 속 행군이라 마음은 더욱 급해지오.
머리 위 높은 산, 바람에 휘감긴 붉은 깃발을 들고 험준한 고개를 넘는다오.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눈과 바람이 가득한 곳, 저 감강(贛江).
어제 명령하길, 십만 노동자 농민에게 길안(吉安)을 진격하라 하였지요.³⁰⁾

1930년 2월 홍군이 무이산(武夷山)³¹⁾을 넘어 강서(江西)의 남쪽으로 길안(吉安)을 공격하기 위해 광창(廣昌)을 지날 때 쓴 것으로 전체 시에서는 ‘폭설 - 붉은 깃발 - 바람 - 진격’으로 시상이 빠르게 이어지며 앞에서 소개한 알렉산드르 블로크의 시 「열돌」의 ‘눈보라’와 ‘타오르는 붉은 불’이 주는 흰색과 붉은색의 선명한 대비가 서로 일치하는 시적 구성을 보인다.

높은 하늘 뭉게구름, 하늘 끝 멀리 날아가는 기리기.
장성(長城)에 못 간다면 어찌 대장부라 하라, 손가락을 꼽아보니 이만 리 길 행군.
루판(六盤)산 고봉에 오르자, 바람에 마구 휘감기는 붉은 깃발.
지금 포승줄이 내 손안에 있는데, 언제 국민당 무리들을 묶을 수 있으려나.³²⁾

那新的太陽和新的宇宙! (郭沫若, 『恢復戰取』 1928)

30) 漫天皆白, 雪裏行軍情更迫。頭上高山, 風卷紅旗過大關。此行何去? 贛江風雪迷漫處。命令昨頒, 十萬工農下吉安。(「減字木蘭花廣昌路上」)

31) 복건(福建) 서북부와 강서(江西)의 접경 지역에 있는 명산.

32) 天高雲淡, 望斷南飛雁。不到長城非好漢, 屈指行程二萬。六盤山上高峰, 紅旗漫卷西風。今日長纓在手, 何時縛住蒼龍。(「清平樂·六盤山」一九三五月)

위의 세 작품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바람’과 ‘붉은 색’은 각각 역경과 역경을 극복하는 열정적인 투쟁을 의미하며 이는 민중을 하나로 끌어 모으는 상징적 시어로 쓰이고 있다. 나아가 마오쩌둥의 시에서 홍군(紅軍)이 사용하는 ‘홍기(紅旗: 붉은 깃발)’를 포함한 홍색 언어들은 혁명의 불길과 공산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민중의 힘과 용기를 북돋우고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혁명 내러티브에 해당하는 일종의 시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붉은 깃발’은 단순히 물리적인 색채의 의미를 넘어 마오쩌둥이 생각하는 새로운 중국의 정신, 희생, 단결, 투쟁의 의미를 담은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³³⁾의 외연으로서 중국 인민들의 ‘인민성(人民性)’을 표현하고 구성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4. 각인(imprint)과 메타포(metaphor)

1) 혁명의 ‘실존’과 ‘각인’

혁명 투쟁은 날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죽음, 절망, 불안, 허무 등의 감정이 엄습하는 낱낱의 상황에서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적 체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시에서 이러한

33) 사회심리학자 헨리 타즈펠과 존 터너(Tajfel & Turner, 1986)의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모든 사람은 소속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은 사회적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집단 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행동 예측의 지표로도 사용된다. 구성원은 누군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행동에 제한을 두거나 타인이나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하며 그 변화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를 맺게 된다. (『위키백과』 ‘사회 정체성 이론’ 참조) 본 논문에서는 ‘중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특정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상위 개념 ‘사회 정체성’이 아닌 ‘집단 정체성’으로 표현한다.

실존적 체험들을 다양한 수사 기법과 사실적 이미지 재현을 통하여 독자 즉, 군중들에게 혁명 투쟁의 실존적 체험을 '각인(刻印)'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마오쩌둥 시에서의 '각인'은 혁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존적 체험들을 투쟁 구성원들이 함께 기억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혁명 투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인 '홍군(紅軍)', '홍기(紅旗)'와 같은 시어들을 활용하여 혁명 투쟁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군중이 혁명의 역동성을 실감하고 실제로 혁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의 산하(山河) 즉, 대자연 이미지와 혁명을 연결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래 그리고 투쟁의 힘과 열정을 강조하는 방식의 시적 수사를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통해 밝은 미래와 희망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이상을 암시하고, 산과 강 및 폭풍 같은 자연 이미지를 통하여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생존력과 투쟁 정신을 담아낸다.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공감각적 이미지를 혁명 정신과 결합하여 더욱 깊고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혁명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북방의 풍광, 천 리의 빙판, 만 리의 눈보라, 장성의 안팎을 바라보니 아득한 경치, 황하의 위아래로 잠시 흐름을 멈춘 듯하다. 산은 은색의 뱀이 되어 춤을 추고, 고원은 마치 하얀 코끼리들이 내달리며 하늘과 높이를 다투려는 듯하다. 맑은 날, 붉게 물든 태양과 하얀 눈 얼음판이 어우러지는 광경을 보니 그 아름다움을 형언할 수가 없도다!

강산이 이토록 아름다우니, 무수한 영웅들이 서로 다투었지. 아쉽게도 진시황과 한무제는 문장이 다소 약했고, 당태종과 송태조는 문학이 조금 부족하였지. 한 때 세상을 호령했던 칭기즈칸은 활쏘기만 할 줄 알았지. 이제 그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으니, 진정한 풍류객을 찾고 싶다바로 지금 여기서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³⁴⁾

34) 北國風光，千里冰封，萬里雪飄。望長城內外，惟餘莽莽，大河上下，頓失滔滔。山舞銀蛇，原馳蠟象，欲與天公試比高。須晴日，看紅裝素裹，分外妖嬈。江山如此多嬌，引無數英雄競折腰。惜秦皇漢武，略輸文采，唐宗宋祖，稍遜風騷。一代天驕，成吉思汗，只識彎弓射大

위의 시에서 두드러진 내용적 특징은 아름다우면서도 웅혼한 산하 즉, 자연에 대한 묘사와 역사 인물의 등장이다. 원문의 '江山如此多嬌'³⁵⁾는 중국인들이 상용하는 언어로서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연속극이나 관련 서적의 제목으로 활용되며 하나의 중국어 어휘로 분류할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는 혁명의 공간적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마오쩌둥 스스로 혁명 지도자로서의 시간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자연 경관에 대한 찬탄이나 역사 인물들에 대한 시공간적 장면 구성은 혁명의 정당성과 혁명 주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사로 볼 수 있다.

사람은 쉬이 늙고 하늘은 늙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 매년 돌아오는 중앙절. 오늘 다시 중앙절이 찾아오니, 옛 전쟁터에 피어난 들국화가 유난히 향기롭다!

해마다 한 번씩 불어오는 맹렬한 가을바람은, 봄과는 사뭇 다른 풍광을 빚어 내고,

봄의 풍광보다도 아름다운 건, 드넓은 강과 하늘을 뒤덮은 흰 서리라오.³⁶⁾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묘사와 공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중앙절, 맹렬한 가을바람, 온 세상을 덮은 흰 서리,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내용은 두목(杜牧)의 시구 '서리 맞은 단풍이 봄꽃보다도 붉도다(霜葉紅於二月花)'를 시가 창작상의 환골탈태 기법을 사용하여 전쟁터의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천의 풍

雕。俱往矣，數風流人物，還看今朝。（「沁園春·雪」一九三六年二月）

35) 영화 『江山如此多嬌』는 중국 공산당 호남성 선전부와 호남성 각 매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농촌 계몽극으로 가난 극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2021년 호남(湖南) 위성 텔레비전에서 처음 방영하여 그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였다.(『百度百科』) '江山如此多嬌'는 중국인들이 아름다운 산천을 보면 맨 먼저 떠올리는 상용어로서 마오쩌둥 시의 각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말이다.

36) 人生易老天難老，歲歲重陽。今又重陽，戰地黃花分外香。一年一度秋風勁，不似春光。勝似春光，寥廓江天萬里霜。（「採桑子·重陽」一九二九年十月）

광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유난히 향기로운 전장의 들국화(戰地黃花分外香)' 구절은 처연한 전쟁터와 향기로운 들국화의 강렬한 대비를 통하여 혁명의 피로써 쟁취한 전장이 바로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이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전장에 유난히 향기롭게 피어난 노란 들국화는 혁명 투쟁을 통하여 얻은 조국 강산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목숨을 건 극한의 상황 속에서의 실존과 그 가치에 대한 상징적 존재를 나타내는 시어로서 나아가 인간의 투쟁과 투쟁의 의미가 얽힌 복합적인 실존적 경험을 강조하며 전쟁의 기억과 감정을 독자들에게 각인하는 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빨주노초과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 누가 비단 띠를 들고 춤을 추나요?
비 개인 후 다시 나타난 석양을 배경으로, 검푸른 못 산들이 줄서듯 다가오네요.

그해 치열했던 전장, 앞마을 담벼락에 남겨진 선명한 총알 자국들,
지금은 마치 장식처럼 못 산들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는데요.³⁷⁾

시 속의 '앞마을 담벼락에 난 총알 자국들(彈洞前村壁)'은 위의 시 '전쟁터에 피어난 향기로운 노란 들국화'와 동일한 수사로 전장에 피어난 들국화가 그렇듯 '담벼락의 총알자국' 역시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에 점철된 혁명 투쟁의 숭고함을 극대화하고 혁명 투쟁과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연결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혁명 주체로서의 실존적 의지와 결단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조국의 아름다운 산하는 언제나 강력한 혁명 투쟁의 동력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며 이러한 시적 요소의 활용을 통해 혁명적 정신을 고양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혁명 주체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아름다움(조국의 산하)'과 '고난(혁명 투쟁)'이 얽힌 이미지는 혁명 투쟁이라는 실존적 체험과 투쟁 과정의 승화를 표현하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메

37) 赤橙黃綠青藍紫，誰持彩練當空舞。雨後復斜陽，關山陣陣蒼。當年鏖戰急，彈洞前村壁。裝點此關山，今朝更好看。(菩薩蠻大柏地)(一九三三年夏)

시지를 넘어 인간과 자연, 역사와 혁명의 복합적인 관계를 시적으로 풀어내며 혁명의 위대함을 극적인 시적 대조를 통하여 각인시키고 있다.

2) 혁명 '은유'와 감성 파놉티콘³⁸⁾

감성 파놉티콘은 감성의 '감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혁명 리얼리즘 시의 특성은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매우 풍부한 서정(抒情)성을 담아낸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 고전 시가의 '언지(言志)'와 '연정(緣情)' 전통의 전승 측면에서도 비교적 온전한 전승이라고 볼 수 있다.

마오쩌둥 시에서의 '감성' 터치에 대한 수사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담아내는 동시에 독자(군중)들이 마오쩌둥 자신의 감정적 흐름을 함께 따라가도록 다양한 시적 내러티브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정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혁명의 상징적 이미지와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 독자들이 그의 사상과 비전에 깊이 공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자신도 혁명의 일부로서 온전히 혁명의 대의에 몰입하게 된다. 이처럼 마오쩌둥의 시가는 감정적 선동성을 매개로 하여 독자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영향을 주고 나아가 민중의 의식과 사상을 통제하는 감성 파놉티콘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이는 독

38) '파놉티콘(panopticon)'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르미 벤담이 1791년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계 제안한 교도소의 한 형태(감옥 건축 양식)로서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pan)'과 '본다'는 뜻의 '옵티콘(opticon)'을 합성한 단어이다. 벤담이 소수의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하면서 이 말을 만들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1975)에서 벤담의 '파놉티콘'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 철학적으로 고찰하였다. 푸코에게 '파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감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푸코가 해석하는 '파놉티콘'은 현재 정보화 시대의 전자 감시와 많이 흡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파놉티콘의 사회적 의미 확장에 착안하여 마오쩌둥 시가 지니는 대중 감정 통제 및 선동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필자 주)

자들이 그의 혁명적 사상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혁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감성적 감시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종산(鐘山)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백만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이 장강(長江)을 건넌다.
 이제 용호(龍虎)의 도시 남경(南京)은 오늘이 어제를 이겨내고,
 이 땅에 천지개벽을 이루었으니 감개무량하도다.
 마땅히 남은 힘으로 끝까지 적을 쫓아내어,
 부디 명성에 연연하여 초(楚) 패왕(霸王)의 전철을 밟지 않길.
 하늘이 감정이 있다면 하늘도 늙어 갈지니
 인간 세상의 변화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오.³⁹⁾

남경(南京)을 정복하고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았을 때 마오쩌둥은 쓴 시로 마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약 받고 도장을 찍는 의미의 작품이다. 어쩌면 남경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오쩌둥 식의 '작시(作詩) 해방 선언'은 다른 어떤 문건보다도 감동을 주고 심리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다. '정치인' 마오쩌둥이 현실주의 시인들 보다 오히려 낭만주의 시인 이백(李白)과 유미주의 시인 이하(李賀)의 시를 더 가까이한 것만 보아도 그는 분명 감성을 중시 하였던 시인 정치인이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비범한' 능력으로 혁명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마다 매번 마치 하나의 '선언문'처럼 시를 써서 사건을 매듭짓곤 하였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 매듭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온전히 마오쩌둥과 사회주의에 대한 벽차오르는 충성심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최종 판결문과 같은 작품이다.

시적 효과를 통하여 독자의 감성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일반 서정서사시처럼 독자에게 열린 공간에서 마음껏 감정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과는

39) 鐘山風雨起蒼黃，百萬雄師過大江。虎踞龍蟠今勝昔，天翻地覆慨而慷。宜將剩勇追窮寇，不可沽名學霸王。天若有情天亦老，人間正道是滄桑。（「七律·人民解放軍占領南京」一九四九年四月）

다르다. 어쩌면 마오쩌둥은 풍부한 서정적 묘사를 통하여 전체 인민을 향해 일종의 감정적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959년 6월 25일 소산(韶山)에 오다. 이곳을 떠난 지 32년이 되었다)
 꿈처럼 희미한 이별 속에 세월을 원망할 뿐, 32년 전의 그 고향 앞에 다시 섰
 네요.
 붉은 깃발을 농민의 창에다 감고, 적들은 무쇠 채찍을 높이 달고 있었지요.
 그들의 장렬한 희생이 있었기에 감히 새로운 날을 꿈꿀 수 있었고요.
 이제 저 파도치듯 일렁이는 논밭을 보는 희열, 여기저기 영웅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 안개 속에 돌아오고 있네요.⁴⁰⁾

이 시는 1958년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어 1959년 기근이 절정에 달하고 인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쓴 작품이다. 작품의 어느 곳에서도 당시 인민의 처절한 상황을 직시하고 위로하거나 반성하는 흔적은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 시한 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온전히 스스로의 판단과 감정에 사로잡힌 지도자의 행동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30년 넘게 시적 수사와 선동을 통하여 인민을 감정의 감옥으로 이끈 마오쩌둥은 이제 자기 자신도 자신이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40) (一九五九年六月二十五日到韶山。離別這個地方已有三十二周年了。)別夢依稀呢逝川，故園三十二年前。紅旗卷起農奴戟，黑手高懸霸主鞭。爲有犧牲多壯志，敢教日月換新天。喜看稻菽千重浪，遍地英雄下夕煙。(「七律到韶山」)

5. 언어 프레임⁴¹⁾과 혁명 시학의 정치 함수

1) 언어 프레임과 담론 정치

한창 혁명이 무르익을 무렵 마오쩌둥의 고민은 자신의 언어 의미장⁴²⁾을 어떻게 형성하고 확대하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사회주의 혁명에 걸맞은 새로운 '뉴스피크'를 통한 '인민 담론'을 만들어 내는 일이었다. 그 작업 중 두드러진 한 가지 예로 중국 정치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위인민복무(爲人民服務: 인민을 위해 봉사하다)'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중국 공산당 정치 행위의 기본 지침인 동시에 불변의 목표이며 당과 인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담론 정치 언어 프레임으로 마오쩌둥의 다음 언급에서 유래한다.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 죽음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사마천(司馬遷)이라는 문학가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깃털보다도 가볍다”라고 하였다.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죽으면 그것이 곧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요, 파시즘을 좇거나 인민을

41) '언어 프레임(frame)'은 사람들이 특정 사건이나 주제를 특정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인지적 틀로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미와 중요성을 재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언어 프레임을 통하여 사회적 담론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개인은 해당 이슈에 대한 특정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공통된 이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조지 레이코프, 유나영(역),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2018) 1부 「프레임 구성 이론과 적용」 참조)

42) 의미장(意味場 semantic field): '날말밭'이라고도 한다. 언어학에서 특정 주제를 가리키도록 의미론적으로 묶인 단어(어휘소)의 집합을 가리킨다. 특정 날말밭이 지니는 의미를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려는 의미 이론으로서 하나의 의미장에 속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장 속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의 '의미장'은 마오쩌둥이 혁명 과정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 언어 날말밭을 가리킨다.(장준영, 「비문학(非文學) 정치 시대의 '언어' 리터러시-중국 정치 언어의 '모자이크' 현상과 '의미장(semantic field)'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86집, 전문 참조)

괴롭히고 인민을 못살게 구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 죽음은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다.⁴³⁾

중국의 국부로 인민들에게 추앙받는 마오쩌둥의 입에서 나온 거의 모든 ‘언어’는 예외 없이 하나의 강력한 언어 프레임으로서 여전히 현재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그의 혁명 시 역시 그의 정치적 이념과 세계관이 반영된 시적 언어 프레임으로 그 정치적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마오쩌둥은 시를 통해 대중이 혁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념과 동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적 언어의 선정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의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혁명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담론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의 시에서 용맹한 전사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한 묘사는 대중에게 그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의미 공간⁴⁴⁾을 확장하고 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마오쩌둥의 시는 혁명의 영웅적 이미지를 강화하며 대중에게 공동의 목표와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프레임은 단순한 정서적 감동을 넘어 혁명과 사회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도구로 기능한다. 마오쩌둥은 시에서 자연을 변혁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속에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심고자 하였으며 시 속의 언어 프레임은 대중에게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마오쩌둥

43) 人總是要死的，但死的意義有不同。中國古時候有個文學家叫做司馬遷的說過：“人固有一死，或重於泰山，或輕於鴻毛。”爲人民利益而死，就比泰山還重；替法西斯賣力，替剝削人民和壓迫人民的人去死，就比鴻毛還輕。（毛澤東，「爲人民服務」（一九四四年九月八日），『毛澤東選集』第三卷，1004쪽）

44) ‘의미 공간(semantic space)’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의미의 여러 모양에 공간적인 특성을 부여해 규정해 가는 의미 표시의 하나로서 의미 미분법의 척도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의미의 모양을 공간적인 위치로 규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마오쩌둥의 시에서 자연 경관의 묘사를 사회주의적 정치 관점에서의 새로운 의미 공간 창출로 보았다.(필자 주)

의 시를 통한 언어 프레임과 정치 담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가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의 리더십 아래서 발전한 중국 혁명 투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cage) 안에 갇힌 '상상력'은 결국 소멸되겠지만,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그 우리는 가장 안락하고 달콤한 상상의 공간일 수 있다. 이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이 아무 일 없이 나날이 살찌는 것처럼 사람들의 상상력도 어떤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나아가 언어 프레임 역시 특히 무엇인가에 경도된 사람들에게겐 그들의 인식과 사상을 지배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마오쩌둥의 시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과 혁명적 가치관이 담긴 언어 프레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이를 통해 대중에게 특정 메시지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적 이상을 대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하늘로 솟구쳐 오른, 장대한 곤륜(崑崙)산,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모두 보았지.

겨울에는 수천의 옥룡이 춤추듯 날아오르며, 온 세상을 추위에 떨게 하고,
여름에는 태양이 눈을 녹여 강물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물고기 밥이 되기도 하였지.

그대 천 년의 공과(功過)를, 일찍이 누가 와서 평한 적이 있었던가?

곤륜산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리 높지도 말고, 그리 많은 눈도 갖지 말게나.

어찌하면 내가 의천(依天) 보검을 뽑아들어 그대를 세 토막으로 자를 수 있을까?

하나는 유럽에 주고, 하나는 미국에 주고, 나머지 하나는 동쪽 나라에 돌려주리라.

평화로운 세계, 온 세상이 그 열기와 냉기를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오.⁴⁵⁾

45) 橫空出世，莽崑崙，閱盡人間春色。飛起玉龍三百萬，攪得周天寒徹。夏日消溶，江河橫溢，人或爲魚鱉。千秋功罪，誰人曾與評說。而今我謂崑崙：不要這高，不要這多雪。安得倚天抽寶劍，把汝裁爲三截。一截遺歐，一截贈美，一截還東國。太平世界，環球同此涼熱。

1935년 10월, 작품 「장정(長征)」을 지어 홍군들에게 낭송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막바지 장정(長征)이 한창인 때 육반산(六盤山)으로 진군하며 쓴 시이다. 곤륜산의 의인화를 통하여 스스로 혁명 리더로서의 패기와 기상을 호기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은유’는 사실 언어 프레임에서 상용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마오쩌둥은 일련의 혁명 과정을 시적 은유를 통하여 인민들 앞에 전시하여 인민에게 공간적 시간적 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를 읽는 인민들은 마오쩌둥이 느끼는 바와 동일한 신체화한 마음(embodied mind)⁴⁶⁾을 가지게 되고 결국 사회주의 혁명 정치에 적합한 ‘인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2) 정치 시학 메커니즘

시(詩)가 정치로 들어왔을 때 시가 과연 정치의 언어 프레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먼저 시와 같은 특수 언어의 사용이 현실 정치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창작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치적 목적이 결핍되었을 때 내가 쓴 것들은 하나같이 글에 생기가 없으며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는 문장에다 별 의미 없는 글귀 그리고 작위적인 형용사들로 가득 채운, 한 마디로 쓸데없는 소리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⁴⁷⁾

(「念奴嬌·昆崙」一九三五年十月)

46) 조지 레이코프의 ‘신체화한 마음(embodied mind)’ 개념은 인간의 사고와 인지가 신체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저서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1999)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에서 조지 레이코프는 우리가 신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사고방식과 개념 형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서양 철학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한다.(<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참조)

47) 回頭去看我的作品, 我發現, 在我缺乏政治目的的時候, 我所寫的東西, 無一例外地都毫無生氣, 都成了華而不實的段落, 沒有意義的句子, 矯揉造作的形容詞, 總之, 都是廢話。(喬治奧威爾,

이 말은 정치 활동이 문학적 소양을 지닌 정치가 혹은 정치에 관심 있는 문학가에게 신나고 열정적인 창작 동기를 유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글쓰기에서 '예술적 정치 문장 쓰기'의 꿈을 놓지 않았던 조지 오웰은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정치와 문학(예술)의 공존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했지만 그 결과물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환호를 받았다. 문학과 정치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마오쩌둥의 시 창작 역시 조지 오웰의 행위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오쩌둥의 시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그의 정치 시학 메커니즘은 다층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우선, 마오쩌둥의 시는 혁명적 상징을 통해 사회적 투쟁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대장정과 같은 상징적 요소로 독자에게 혁명의 역동성과 변화를 전한다. 그는 자연과 혁명을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강인한 생명력과 변화를 사회적 투쟁의 불가피한 흐름과 연결함으로써 자연스레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또한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와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혁명적 신념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시인 개인의 감정을 집단적 의지와 결합시켜 혁명의 이념적 가치를 대중이 일상에서 체화하도록 독려하여 이념이 곧 개인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며 이를 통해 대중이 혁명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이밖에도 마오쩌둥의 시는 혁명의 역사적 정당화라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과거의 영웅적 이미지와 상징을 차용하여 현재의 투쟁이 역사적 연장선상에 있음을 드러내면서 혁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마오쩌둥의 시는 예술과 정치가 결합된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혁명 이념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다.

산 아래는 다가오는 적(敵)의 깃발, 산꼭대기에는 아군의 북소리

李存捧 譯, 「我爲甚麼寫作」, 『政治與文學』, (南京: 譯林出版社, 2011), 417쪽)

겹겹이 포위한 적군 앞에, 마치 거대한 산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미리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우리의 결기 또한 성벽처럼 단단하다.
황양계(黃洋界)에 엄청난 포성 올리더니, 밤중에 적들이 물러났다고 한다.⁴⁸⁾

이 작품은 1928년 가을 그야말로 악전고투였던 황양계 전투에서 적들을 물리친 후 쓴 시로서 생생한 무장 투쟁 장면을 소재로 한 혁명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혁명 기지였던 정강산(井岡山)을 공산주의 정신과 결속의 상징으로서 혁명적 투쟁의 터전으로 묘사하여 이곳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혁명의 굳건한 기반임을 강조한다. 산의 거친 지형과 자연의 힘은 혁명 투쟁의 어려움과 맞물려 마치 혁명이 자연의 불가피한 변화와도 같다는 필연성을 암시하며 혁명의 결연한 의지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이념적 의지가 엄혹한 전장과 연결되어 더욱 두드러진다. 이처럼 자연과 혁명의 상징적 결합을 통해 공산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시가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하여 대중이 혁명적 결의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정치와 시학이 결합된 독창적인 정치 선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마오쩌둥 혁명 시의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나 이론적 언급을 넘어 정치적 언어 콘텍스트를 창출하고 대중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였으며 특히 대중 선동을 통하여 혁명의 당위성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혁명 투쟁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민들의 감정적 은신처로서 그리고 혁명의 실천적 도구로서 자신의 시학(詩學)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활용하였다.

48) 山下旌旗在望，山頭鼓角相聞。敵軍圍困萬千重，我自巋然不動。早已森嚴壁壘，更加衆志成城。黃洋界上炮聲隆，報道敵軍宵遁。（「西江月·井岡山」）

6. 맺음말

중국 여행을 하다보면 '장성(長城)에 닿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不到長城非好漢)'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듣게 되고, 자연 풍광을 다룬 다큐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조국의 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江山如此多嬌)'라는 감탄사를 듣게 된다. 사실, 두 상용어는 마오쩌둥 리얼리즘 혁명 시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로서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상징한다. 그만큼 마오쩌둥의 혁명 시학은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언어 프레임으로서 또 다른 의미의 견고한 '장성' 하나를 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 혁명 시학의 언어 프레임은 공산당 혁명 시기 단순한 선동을 넘어 대중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혁명 정체성을 구축하는 심리적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시학을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한 언어 프레임은 대중으로부터 강력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혁명 이념을 대중적이고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특히 혁명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마오쩌둥의 시가 창작 활동은 자신의 사상적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아감으로써 혁명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시적 언어 프레임은 시적 표현과 문학적 장치를 활용해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은유, 상징, 이미지 등의 창작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시 사회를 사회주의 혁명 이념으로 프레임 하는 데 기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의 언어 프레임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혁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마오쩌둥의 정치 시학(詩學)은 이러한 언어 프레임을 통하여 당시 중국 사회를 사회주의 혁명 이념 사회로 전환하고 이후 중국의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마오쩌둥이 구축한 언어 프레임은 정치적 선전을 뛰어넘어 일종의 정치 문화유

산으로서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의식 구조 형태로 남아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또 재현되고 있다. 이는 마오쩌둥이 정치적 지도자로서뿐 아니라 시대의 문학과 대중의 감성에 깊이 각인된 정치 시인으로서도 깊은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의 시적 언어 프레이밍은 단순히 혁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문화와 정치 담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오쩌둥의 정치 시학이 현재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담론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중국 정치의 이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毛澤東, 『毛澤東選集』(全四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8.
- 毛澤東, 『毛澤東文集』(全八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9.
- 公木, 『毛澤東詩詞鑑賞』, 吉林: 長春出版社, 2020.
- 陳原, 『語言和人』, 北京: 商務印書館, 2003.
- 張孝評, 『毛澤東文藝思想與中國傳統文化』, 西安: 西安出版社, 2009.
- George Orwell, 李存捧(역), 『政治與文學』, 南京: 譯林出版社, 2011.
- 姚春鵬姚丹, 『毛澤東思想與儒家』, 齊南: 山東大學出版社, 2012.
- 蔡麗, 『傳統、政治與文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 과버 비렌, 金化中(역), 『색채심리』, 서울: 東國出版社, 1995.
-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 외(역), 『군중과 권력』, 서울: 바다출판사, 2012.
- 조지 레이코프, 유나영(역),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와이즈베리, 2018.
- 퀴스타브 르 봉, 강주현(역), 『군중심리』, 서울: 현대지성, 2023.
- 미셸 푸코, 이정우(해설),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아카데미, 2023.
- 柯文溥, 「論“普羅詩派”」, 中國現代文學研究 第4期, 1990.
- 張家釗, 「毛澤東與中國古典詩學」, 思想戰線 第2期, 1994.
- 龍泉明, 「普羅詩派詩歌創作得失論」, 武漢大學學報 第4期, 1997.
- 譚解文, 「論毛澤東的詩學觀」, 中國韻文學刊 第1期, 2002.
- 黃一釗, 「毛澤東詩詞中的人文情懷與詩學史觀」, 黨史博採(下) 第2期, 2002.
- 陳振華, 「毛澤東與延安文學的整合」, 湘潭大學學報 第29卷第3期, 2005.
- 張器友, 「長征和長征題材的文學創作」, 文藝理論與批評 第6期, 2006.
- 張白茹, 「毛澤東詩詞創作的傳統詩學審美探微」, 毛澤東思想研究 第23卷第4期, 2006.
- 袁盛勇, 「延安文學觀念中的文學與政治」, 文藝爭鳴 第5期, 2009.
- 劉廣遠, 「長征詩詞歌的徐事話語與形式構建」, 學習與探索 第10期, 2016.
- 劉東玲, 「“新人”的誕生: 論延安文學範式的形成」, 學術月刊 第10期, 2022.
- 秦林芳, 「論解放區前期文學中的“深入群眾”觀念」, 中國當代文學研究 第2期, 2022.

Abstract

A Study on the Linguistic Framing of Mao Zedong's Revolutionary Poetics

Jang, Jun Young

Mao Zedong's revolutionary poetry served as a means of 'language framing' during China's socialist revolution. Mao Zedong's poetry advocated revolutionary realism, which inherited the realism of traditional Chinese poetry, and created a new socialist language context by borrowing the form of traditional poetry and fully incorporating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Looking at the composition process in detail, it is as follows. First, through intense and repetitive crowd rhetoric, the crowd is 'People-ification' and the 'red' identity, the core value of socialism, is established through detailed descriptions of various existential experiences and delicate poetic narratives. In particular, he shared the entire process of the revolutionary struggle with the crowd through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hardships and experiences of overcoming adversity during the revolutionary struggle, naturally leading them to the battlefield of the revolutionary struggle. Second, the macroscopic scene description of the majestic natural scenery and the microscopic description of the revolutionary army's every move are combined to depict a revolutionary scene with a perfect sense of distance from far and near, thereby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rowd by giving the legitimacy and identity of the revolution through expansion of 'semantic space' and promoted mass participation in the revolution. Third, poetic tension was heightened through strong color contrasts such as white and red, and a clear revolutionary image of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revolution was drawn by using appropriate poetic metaphors. Lastly, the various linguistic frames used in Mao Zedong's poetry have an impact on the public and constitute a political linguistic context, further establishing themselves as a linguistic mechanism in Chinese politics.

Key words : Mao Zedong, poetics, language framing, mass line, mechanism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

